

열왕기하 17.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하 17 장 1-41)

들어가기

본 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을 정복한 앗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 북이스라엘을 위협하여 해마다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호세아’는 앗수르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 애굽의 힘을 빌려 일어서고자 했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하고, 결국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본 장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서론적 평가 (1-2 절)

- 1) ‘호세아’ 왕은 ‘엘라’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제 19 대 왕이 되었습니다.
 - 그는 유다 왕 ‘아하스’ 12 년에 북이스라엘의 제 18 대 왕인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됨.
 - 9 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함. (그러나 실질적 통치는 6 년!)
 - 참고로 ‘호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주변 왕들
 - 유다 -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 앗수르 - ‘살만에셀’ 3 세와 ‘사르곤’ 2 세 (B.C 722-705)

- 2)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이전 왕들만큼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2 절)
 - 예: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앗수르 사람들이 뽀엘에서 금송아지를 빼앗아 왕에게 바침!
 - 참고로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10 장 6 절에서 이것을 미리 예언함!
 - 그런데 이 사건 후 ‘호세아’ 왕이 금송아지를 다시 제작해 뽀엘에 세웠단 기록이 없음!!
 - > 물론 이것이 ‘호세아’ 왕이 금송아지 예배를 단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 > 그러나 그가 역대 왕들처럼 적극적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2. ‘호세아’ 왕의 통치 (3-6 절)

- 1)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호세아’ 왕은 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3 절)
 - 여기서 ‘종이 되었다’는 표현은 전쟁 전, 먼저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
 - 그 결과,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제압하기보다는 해마다 조공을 받기로 결정!
 - 이런 ‘호세아’의 판단은 분명 정치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판단이었음!!

- 2) 그런데 이 같은 국가적 위기를 잘 넘긴 ‘호세아’ 왕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 도움을 청하며 앗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였습니다. (4 절)
 - 참고로 애굽 왕 ‘소’는 애굽 왕 명부에는 발견되지 않는 왕.
 - 학자들 - 아마도 애굽 제 25 왕조의 에디오피아 혈통의 첫 두 왕 중에 하나로 추측.
 - 그런데 당시 애굽은 나라가 분열되어 앗수르에 대항할 만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때!!
 - 곧 애굽을 의지하여 앗수르를 몰아내려는 ‘호세아’의 판단은 어리석은 판단이었음!!

-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롭게 위기의 상황을 넘겼다면, 더욱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했음!!

3) 결국 앗수르 왕은 이 일을 계기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호세아’ 왕을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였습니다.

- 아마도 앗수르 군대를 막고자 출전한 ‘호세아’ 왕이 전투에서 패하고 생포되었던 듯.
 - 이때 앗수르 왕은 그를 바로 처형하지 않고 본국으로 압송하여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
- 그 동안 사마리아를 제외한 북이스라엘 전역은 앗수르 군대에 비참하게 무너지게 됨!
 - 참고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 왕이 ‘세멜’에게 구입한 산지로 ‘오므리’ 왕은 산지 위 바위산 정상에다 사마리아 성을 요새처럼 건설함.
 - 따라서 당시 앗수르 군대는 이 성을 쉽게 정복하지 못하고, 3년이나 포위하고 싸웠음.

4) 그러나 ‘호세아’ 9년,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 당하고 말았습니다. (6 절)

- 사마리아 성을 점령한 앗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고가 고산 강가의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 살게 함.

3. 성경이 가르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3가지 (7-23 절)

➤ 먼저 7-8 절을 주목!!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 ‘이 일’이란 말은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 당한 일!
-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

1) 첫 번째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함! (9-12 절)

- 9 절 -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움!
- 10 절 -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움!
- 11 절 -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함!
- 12 절 -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상을 섬김’!!

2) 두 번째 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음! (13-18 절)

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보내 말씀하심! (13 절)

- a) ‘...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킬 것!’
- b) ‘...,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할 것!’

②.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조상들처럼, ‘듣지 아니했고, 목을 곧게 함!! (14 절)

- a)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림! (15 절)

- b)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삶! (15 절)
- c)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들을 따라 삶! (15 절)
- d) 온갖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 (16-17 절)
- e)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격노하게 함!

③. 그 결과 하나님은 심히 노하셨고, 저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심으로,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게 하셨음! (18 절)

- 참고로 15 절 ‘b’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고,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자!

3)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유다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경고! (19-23 절)

- 19-20 절 주목!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분명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들의 죄악을 따라가는 유다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된다는 것!
- 특별히 하나님은 21-23 절의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유다와 분리되고, 오늘의 멸망을 맞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셨음!
 ○ 곧 북이스라엘의 멸명은 결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예언들이 성취된 것!
 ○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듣고 회개함으로써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꼭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자!

4.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사마리아 (24-28 절)

- 1) 앓수르 왕은 앓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살도록 하였습니다. (24 절)
 - 사마리아로 이주한 앓수르 사람들 =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출신들!
 ○ 참고로 학자들은 당시 앓수르에서 이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앓수르 사회에서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
 ○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거룩한 약속의 땅이 이방나라 하층민들이 거하는 땅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슬픈 일!
- 2) 그런데 당시 이주해온 앓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경건하게 행동하자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어 저들 중 몇 사람을 물어 죽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25 절)

- 여기서 생각할 것 하나!
앗수르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사자를 보내 물어 죽도록 하셨을까?
○
- 한 신학자의 코멘트
‘거룩한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와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화!’

- 3) 이 사실을 알게 된 앗수르 왕은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사마리아로 돌려 보내며 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26-28 절)
- 그로 인해 이 제사장은 벨엘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게 됨!
○ 그런데 이것을 돌려 생각하면, 결국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할지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

5. 사마리아에서 혼합종교가 시작되다! (29-41 절)

- 1) 사마리아로 돌아온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율법) 가르쳤으나, 앗수르 이주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계속 섬기며 혼합 종교를 탄생시켰습니다.
- 30-31 절 -> 이주민들이 가져온 우상들
‘바벨론 사람들은 ‘숙곳브닛’,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넵하스’와 ‘다르닥’,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침!
 - 32-33 절을 주목! => 혼합종교의 시작!
a)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함!’ (32 절)
b)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3 절)
- 2) 그런데 하나님은 열왕기하의 저자를 통해 야곱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5-39 절)
- 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여 섬기며 예배할 것!
 - ②.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영원히 지키고 행할 것!’
 - ③.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저들을 지키시고 건져내실 것!
- 3)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주한 앗수르 이주민들과 종교, 문화, 혈연등 모든 관계에서 혼합하며 범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40-41 절)

6.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거나 결심한 내용들이 있다면?